

**검은 토끼의 해**



멋진 도약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평균실종**



평균과 기준, 정형이 사라진 사회  
중간이 없는 승자독식의 세상  
'평균'이라는 안전지대는 더 이상 없다.

**알파세대**



순도 100퍼센트 '디지털 원주민'  
일찌감치 온라인 세상을 접수한 그들  
우리의 미래, 알파세대가 온다.

# 2023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트렌드 코리아 2023’ 김난도 교수 등 10명 참여 내년 트렌드 전망  
‘평균 실종’ ‘오피스 빅뱅’ ‘네버랜드 신드롬’ 등 10가지 핵심 키워드

평균 실종, 오피스 빅뱅, 인덱스 관계, 알파세대 부상...

대외적으로 들려오는 소식이 온통 우울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태원 참사 등은 충격을 주었다.

작금의 미국 연준의 사이언트 스텝은 많은 나라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흑자들은 지난 2008년 벌어졌던 금융위기가 재연될지 모른다는 불안한 전망까지 하고 있다.

2023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위에 언급한 평균 실종, 오피스 빅뱅 등은 새해 트렌드를 전망하는 핵심 키워드들이다. 검은 토끼의 해로 불리는 2023년은 어떻게 달라질까. 특히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매년 발간되는 ‘트렌드’ 시리즈가 올해도 나왔다.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가 전망하는 2023년에 대한 내용들이 알차게 담겨 있다. 김난도 교수를 비롯해 모두 10명의 저자들이 참여했다. 에스24에 따르면 책은 11월 첫째 주 현재 종합베스트셀러 1위에 오를 만큼 독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저자들은 검은 토끼의 해라고 불리는 2023년의 소비 트렌드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키워드를 살펴봤다. 가장 먼저 ‘평균 실종’을 들 수 있다.

소득의 양극화는 소비의 양극화를 낳는다. 점차 평균, 통상적인 것들에 대한 개념이 무너지고 있다. 소득의 양극화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예다. 시장은 승자독식으로 굳어지면서 중간 계층이 자리를 잡을 수 없게 만든다. 이러한 사회 트렌드 앞에서 독자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

‘오피스 빅뱅’이 다음의 트렌드로 꼽혔다. 이제 고전적인 직장 문화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팬데믹 이후 일터로의 복귀를 거부하는 것은 잠시 잠깐의 현상에 머무르지 않는다. 출퇴근, 워라벨, 재택, 하이브리드 근무가 뒤섞이는 가운데 과거의 직장문화는 언젠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점차 달라지는 직장문화 속에서 조직과 개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체리슈머’가 점차 확산될 것이다. 구매는 하지 않으면서 혜택을 챙기는 소비자를 ‘체리피커’라고 한다.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알뜰하게 소비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금융위기, 가계 부채와 같은 빛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수록 무지출을 비롯해 반반을 구매하려는 현상은 점차 확산될 예정이다. 현대판 보릿고개를 넘고자 하는 오늘날의 소비행태가 일반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덱스 관계’도 새로운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다. 관계의 밀도가 아닌 스펙트럼이 중요한 시대다. 오늘날 SNS를 통해 목적 지향적 만남이 이뤄지고 그것을 추구한다. 소통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관계는 여러 인덱스(색인)로 나타나고 있는 추세다. 인간관계의 적절한 수라는 것이 예전처럼 통용될 수 있을지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다.

‘뉴디맨드 전략’도 하나의 트렌드로 등장할 것이다. 아예 생각지도 못한 제품을 내놓았을 때 소비자들은 지갑을 연다. 사지 않고는 배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채로운 뉴디맨드(new demand) 전략은 대체 불가능한 상품, 새롭고 매력적인 상품에 대한 요구가 뉴디맨드 전략과 맞물려 있다.



‘알파세대가 온다’는 내용도 빼놓을 수 없다. 2010년 이후 태어난 진짜 신세대를 일컫는다. 단순히 Z세대 다음 세대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종족의 시작이다. 100% 디지털 원주민이자 세상을 놀라게 하는 세대다.

‘선제적 대응기술’도 일반화된다. 냉장고에 음식이 얼마나 있을까? 등과 같은 상황에서 요구하기 전에 미리 알아 배려해주는 기술이 나오고 있다. 선제적 대응 기술이 그것.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도 중요한 기술이다.

‘공감력’도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을 것이다. 공간은 삶의 근본 토대이자 터전이다. 정교한 가상공간이라도 실재를 이길 수는 없다. 매력적인 컨셉과 테마를 갖춘 공간력이 점차 사람들의 호응과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네버랜드 신드롬’이 포함됐다. 어른 되기를 늦추는 현상을 일컫는 말로 젊음을 미화하는 사회 현상과 무관치 않다. 한편으로 어른다운 어른을 만나기 어렵게 현실이다. 젊음의 정춘과 어른의 지혜를 조화시킬 수 있는 삶의 방식이 요구된다 하겠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고희자 작 '목련꽃과 나비'

## 광주-부산 함께 현대미술 교류전

황토회·신우회, 8~22일 진한미술관

지역을 대표하는 미술 그룹 ‘황토회’는 지난 1970년 창립됐다. 오지호·배동신·화백 등 한국 화단의 대표 작가들이 중심이 돼 첫발을 댄 황토회는 전라도 들판에서 쉽게 만나는 ‘황토’처럼 남도 화단의 근간을 이루며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황토회는 남도 지역의 감성과 정신을 이어감과 동시에 타 지역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서로 예술적 영감을 주고 받고 변화된 미술 환경에 적응하며 발전을 모색해왔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등 타 지역 단체들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이유다.

53년 역사의 ‘황토회’ (회장 고희자)가 8일부터 22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진한미술관에서 정기 회원전을 갖는다. 특히 이번 번시는 부산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신우회’와 연합전 형식으로 꾸려져 의미가 있다.

전시에는 고희자·강근선·고영준·김선화·김수복·김양훈·김연화·김용근 등 황토회

회원 25명과 고태욱·권윤복·김연진·김종호 등 신우회 회원 24명 등 모두 49명이 참여해 개성있는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 작품들은 다양한 장르와 소재를 아우른다. 일상에서 길어올린 단상과 함께 꽃과 나무, 아름다운 산하 등 자연을 바라보는 다채로운 작가의 시선을 만날 수 있는 작품이 전시된다. 또 소중한 삶의 모습과 감동의 순간, 세밀한 감정의 표현 등을 화폭에 풀어놓았다.

지난 1973년 부산에서 결성된 ‘신우회’는 ‘새로운 예술 세계를 만들어가는 가는 친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창립 이후 활발한 활동으로 부산 화단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황토회와 신우회는 교류전을 통해 한국 화단의 중요한 역할을 짊어진 두 도시의 가고 역할을 수행하고, 현대미술을 이끌어가는 두 도시의 다양한 문화예술정책과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선경문학상에 이돈형 시인 선정

수상작 ‘잘디잘아서’ 외 4편

제3회 선경문학상에 이돈형(사진) 시인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잘디잘아서’ 외 4편이며 상금은 1000만 원.

심사를 맡은 김기택 시인과 황정산 평론가는 “이돈형 시인의 시들은 기발하거나 기이한 언어가 아닌 평범한 일상적 어휘로 선명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특별한 언어 감각을 가지고 있다며 ‘한마디로 그의 시는 완성도 높은 언어의 형식미와 함께 삶에 대한 통찰과 사유의 깊이를 동시에 보여준다’고 평했다.

이돈형 시인은 2012년 개간 ‘애지’로 문단했으며 시집 ‘우리는 길길거리다가’, ‘뒤 돌아보는 사람은 모두 지나온 사람’을 발간했다. 2018년 김만중문학상을 수상했고



2018년 아르고 문학창작지원금 수혜를 받았다. 2019년 애지 작품상을 수상했다. 선경문학상은 선경산업에서 후원을 하며 선경문학상 운영 위원회와 ‘상상인’이 주최를 한다. 수상작과 수상소감 그리고 심사평은 오는 2023년 1월 ‘상상인’ 제5호에 게재될 예정이며 수상시집은 별도로 발간된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3일 선경산업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강보라 연구자, 16일 ACC ‘좀비주의’ 전시 연계 강좌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전시 중인 ‘좀비 주의’는 좀비의 의미를 다각도로 조명하는 전시다. ACC가 ‘좀비 주의’ 전시와 연계한 강좌와 작가와의 만남을 마련했다.

먼저 강보라 미디어문화 연구자가 강연자로 나서 다양한 이야기들 들려줄 예정이다. 오는 16일 오후 2시와 4시 두 차례 ACC 문화교육동 강의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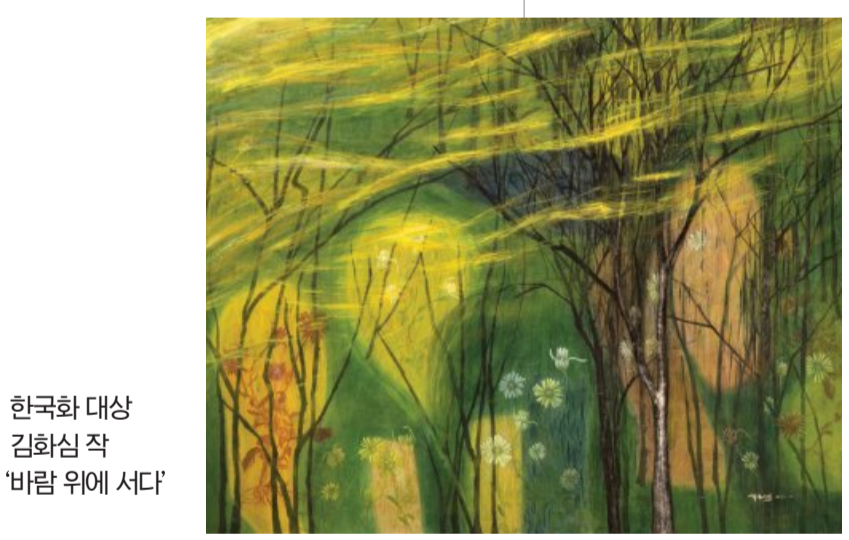
강 연구자는 이번 강연에서 과거와 현재, 서구와 아시아, 영화와 타 장르를 가로지르는 좀비물을 고찰한다. 현대 사회에서 바라보는 좀비란 무엇이고 의미는 무엇인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어지는 ‘작가와 만남’에서는 ‘좀비주의’ 전시에 참여한 강보라 현대미술가가 참여 워크숍을 펼친다.

김 무용가는 2019년 무용예술상 연기상, 2018년 창무예술원 무용예술가상 포스트 젊은 예술가상 등을 수상했으며 스위트 홈(2020), 불가살(2021-22) 등 다수의 방송과 공연에 참여했다.

참여 신청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화 대상 김화심 작 '바람 위에 서다'



서양화 대상 김새롬 작 '너와 함께'

## ‘무등미술대전’ 한국화 김화심·서양화 김새롬 작가 대상

대상 8점, 우수상 25점, 특선 326점, 입선 568점 등 총 927점

최근 막을 내린 제38회 무등미술대전에서 김화심(부산) 작가의 ‘바람 위에 서다’가 한국화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서양화 부문에서는 김새롬 작가(대전)의 ‘너와 함께’가, 문인화 부문에서는 김경미 작가의 ‘향기로운 봄빛’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광주전남발전협의회가 주최한 제38회 무등미술대전 수상작이 발표됐다. 이번 대회 전체 입상작은 대상 8점, 우수상 25점, 특선 326점, 입선 568점 등 총 927점이며 조각 부문은 대상작을 선정하지 않았다.

수상작 전시회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열리며 18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시상식도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 출품작은 지난해보다 108점이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화 180점, 공예 129점, 서예 225점 등 전국에서 모두 1556점이 출품됐고 광주·전남 지역 출품

작이 637점으로 41%, 외지 출품작은 919점으로 59%였다. 전국적으로 공모전 출품작이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번 최대 출품작과 외지 작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무등미술대전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다.

심사는 지난 3일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열렸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봉규 전 광주대 교수는 “제38회 무등미술대전은 한국화, 서양화, 문인화 등 각 장르에서 신소재나 기법이 두드러지고 질적인 면에서나 창의력 면에서 우수하고 창의적인 작품이 출품돼 눈길을 끌었다”며 “역대 가장 많은 작품이 출품된 올해를 계기로 향후에도 무등미술대전이 신진작가 등용문으로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등미술대전은 지난 1985년 지방미술문화의 향상 발전과 전국 미술인의 등용문을 기치로 시작했다. 올해까지 총 4만3419점이 출품됐으며 2만3107점의 입

상작을 배출했다. 이 가운데 대상 수상작품 265점은 시상금으로 매입, 지역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있다. 전체 입상작은 (사)광주전남발전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부문별 대상·우수상 수상자 명단

- ▲한국화=대상 김화심(부산) ‘바람 위에 서다’, 우수상 이성훈·임진규 ▲서양화=대상 김새롬(대전) ‘너와 함께’, 우수상 김예민·병침 ▲문인화=대상 김경미 ‘향기로운 봄빛’ 우수상 윤동욱·하진균 ▲수채화=대상 이남규(대구) ‘쉽’, 우수상 우은욱·윤주영 ▲판화=대상 석뢰(광주) ‘환상-3’ 우수상 주미숙·박재정 ▲공예=조연희(광주) ‘반죽’, 우수상 김하나·서미연·김은경·이재용·문수연 ▲서예=고군자(제주) ‘객문여근황’, 우수상 문세열·서순례·강승희 ▲사진=대상 최중열(인천) ‘간접함’, 우수상 박대명·최재영·김희순·김혜숙 ▲조각=우수상 박세현·장명경·맹국호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